

## 불안을 이기는 몇 가지 팁을 위주로



이 예 슬

- 서울대학교 법대 법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법무법인(유한) 동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예슬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제8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후 정신없이 1년을 보내왔지만,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던 기간의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조금이나마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다른 분들보다 긴 수험 준비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빠르고 효율적인 공부법을 전해주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시계의 수기 기고 권유에 감사한 마음으로 응하게 된 이유는 수험기간 동안 고민 아닌 고민에 주변 선후배, 동기들이 나누어 준 조언이나 소소한 팁이 얼마나 유용한지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그 덕분에 무사히 버틸 수 있었던 지난날을 회상하며 혹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수험생분들이 계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흔히 말하듯 공부의 방법에는 왕도가 없고 각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 또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멘탈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수험생에게 소소한 고민이 생기면 그것만으로도 오랜 시간 흔들리게

되지만, 고민을 해결하고 나서도 고민으로 허비한 시간 때문에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기를 통하여 1년의 추천 커리큘럼이나 구체적 공부법보다는 변호사시험을 1년 앞둔 시점에 생기는 고민으로 인한 불안을 해결했던 경험을 위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앞으로 남은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래 내용과 비슷한 고민으로 흔들리는 시간을 조금 더 빠르게 극복하여, '멘탈'을 붙잡고 꿋꿋이 나아가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II. 나는 지난 2년간 이미 모든 것을 보았다, 교재를 의심하지 말고 불안하면 스터디를 활용하자

변호사시험이 끝나고 '로3'이 될 무렵, 아직도 기본서를 제대로 읽은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에, 요즘 핫하다는 기본서 소식을 듣게 되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러던 중 봄이 되면 선배들의 조언을 모두 조합한 뒤 큰맘 먹고 선택한 출판사의 기출문제집에 대하여 '문제집에 오류가 많더라'는 소문이 들려오고, 하나 둘 해설에 의심이 드는 부분이 생깁니다. 결국, 시험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밑줄 하나 없는 새 기본서를 구입하여 읽기 시작하게 되고 기껏 1회독한 기출문제집을 버리고 새 책을 잡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저 또한 기출문제집을 여러 권 구매해 낭비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시하며 가급적이면 빨리 끝까지 함께 갈 교재 조합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읽어 온 기본서보다 좋은 기본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서 한 권을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들여온 시간은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일 년을 남긴 시점에 '절대

로' 기본서는 새로 사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결코, 정리된 기본서의 완성도가 당락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본서로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기본서는 문제를 풀다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때 찾아보는 보조도구 정도로 쓰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어차피 기본서를 통째로 외워서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닌 이상 2년 넘는 시간 동안 기본서 속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자신을 믿으셨으면 합니다. 가사 기본서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그동안 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미 기본서의 모든 필요한 내용은 기억에 어렴풋이나마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을 인출해내어 문제는 푸는 연습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기출문제집 또한 마찬가지로입니다. 해설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동안 치러진 시험의 기출문제와 정답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불안감의 해소는 교재가 아닌 공부방식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해설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스터디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간에 동기들과 모여 시간을 맞춰 문제를 풀고 난 후, 의문이 생기는 몇 가지 문제를 선별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교재에 대하여 생길 수 있는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III. 선택형 연습의 중요성, 정직하고 믿음직한 과목임을 명심하자

이미 많은 분이 합격 수기 등을 통하여 선택형의 중요성에 대하여 익히 들어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험합격을 위하여도 선택형 시험 점수의 안정적인 확보는 필수적이지만, 그

에 더하여 저는 선택형 공부를 변호사시험의 다른 유형을 대비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형 문제를 풀이해 보면 반복되는 판례나 자주 쟁점이 되는 포인트가 보입니다. 그 부분은 비단 선택형뿐 만이 아니라 사례형이나 기록형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선택형을 반복하여 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암기도 이루어지며 그 쟁점에 대한 이해 또한 깊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선택형은 사례형·기록형보다 굉장히 정직한 과목입니다. 높은 빈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문이 반복 출제되고 있으며, 반복을 통하여 확실하게 기억하게 된 지문은 합격을 위한 정직한 2.5점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급적이면 과목당 선택형 문제집 한 권을 빨리 선택하셔서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여 틀렸던 지문을 표시하다 보면, 시험 전날 빨강게 칠한 오답이 내가 이 지문만큼은 수 번 보았다는 자신감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 IV. 시간이 부족하다면 사례형·기록형은 효율적으로 연습하자

저는 본격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자 사례형과 기록형 문제풀이 계획을 짜다가 또 한 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계획을 짜보니 남은 시간 동안 그동안의 기출문제만 실전처럼 쓰는 연습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전 연습한 내용을 모두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보장이 없는 이상, 사례형과 기록형은 '정리하면서 암기하고', 푸는 연습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주어진 시간 내에 쟁점을 기억해내고 시험지에 써내려가는 연습은 물론 꼭 여러 번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보아도 그 쟁점에 대하여 특별히 완벽하게 암기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각자 시간을 정하고 사례 문제를 푸는 스터디에 참여하되, 쓸 내용을 미리 암기해 온 후 실전처럼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기출문제를 정리하고 바로 암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기출문제의 해설지부터 읽으며 키워드에 밑줄을 치고, 그 다음으로 문제의 지문을 읽은 후, 다시 밑줄 친 각 쟁점의 키워드를 암기하면서 1문제에 주어진 시간을 3문제 이상을 정리, 암기하는데 할애하였습니다. 당장 지금 암기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그때그때 시험 직전에 암기한다는 마음으로 키워드를 선별하고 암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기출문제집이 익숙하게 정리되어 있었기에 시험 직전 빠르게 1회독할 수 있었고, 적어도 기출문제의 모든 쟁점은 시험 직전에도 1회독하였다는 사실 덕분에 안정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 V. 수험기간은 시험 전날 1회독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으로 줄이는 시간이다

바로 전 항에서 기출문제 정리에 대하여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저는 모든 수험기간은 시험 전날 '1회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보냈습니다. 저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변호사시험이 임박하기 전에는 시험 전날이 되면 모든 과목이 푹 치면 바로 나올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로 직전에 본 것

말고는 기억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함께 이야기할 만큼 다른 학우들도 비슷한 문제로 시험 직전 소위 ‘멘탈 붕괴’에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머릿속에 탑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특히 변호사시험은 각 과목에 대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을 한꺼번에 수일간 치러야 하기에 체력은 바닥나고 머릿속이 혼란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결국, 시험 직전 그러한 상황을 직시하는 순간 찾아오게 될 심리적 괴로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감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수험기간은 시험 바로 전날 1회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양을 줄이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도 좋으니, 시험 전날 이것만 1회독하면 된다는 양을 정하시고 그것만 보고 들어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각 과목당 핸드북 1권, 기출문제 각 1권을 정해두고 중요하다고 체크한 쟁점이나 지문을 위주로 1회독 하고, 혹시 시간이 남는 경우 나머지 부분의 키워드만을 빠르게 1회독 하는 방식으로 다음날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동안 줄여온 적은 양의 내용만을 빠르게 읽은 덕분에 시험 전날에도 모든 부분을 1회독 하였다고 믿으며 부족한 자신감을 보충하고 시험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 VI. 나가며

이미 시험을 치른 지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시간에 겪은 체력적인 한계와 심리적 고통이 생생하게 기억될 정도로 변호사시험은 무지막지한 도전이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5일이라는 길고도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과목에 대한 정리를 설 틈 없이 소화하여야 하고, 매일 어느 부분은 포기하는 결정을 해야 했으며, 하루에 각 과목을 조합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한꺼번에 거처야 하는 시험계의 철인 3종 경기와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철인 3종 경기가 각 구성 종목에 대한 기본기에 더하여 체력, 정신력을 요하는 스포츠인 것처럼 변호사시험 또한 기본기에 더하여 무엇보다 체력, 정신력을 관리하는 것이 당락을 좌우하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시험 당일 긴장한 탓에 크게 체하는 등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상황에 가슴이 더 두근거리기도 했고, 그렇게 간절한 시험이었음에도 시험을 목전에 둔 아침에 늦잠을 자고 싶어 하며 스스로에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고민에 직면하게 되는 준비기간 뿐만이 아니라 시험장에서도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 앞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멘탈의 관리’였습니다. 이미 나는 모든 것을 보았다는 자신감과 내가 어려워면 남들도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떨리는 마음 또한 당연하다 여기면서 버티시면 노력하신 만큼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올리며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